

『靑樓韻語』를 통해 본 嫖客의 風流守則*

權鎬鐘 · 李奉相**

目 录

1. 서론
2. 嫖客의 風流守則
 - 1) 노련함 발휘하기(老成熟念)
 - 2) 詩酒를 겸비하기(知詩愛飲)
 - 3) 기녀 비위맞추기(貫心投好)
 - 4) 때에 맞는 말하기(出語隨時)
 - 5) 적당한 질투하기(寡醋休嗔)
3. 결론

1. 서론

『靑樓韻語』는 장몽징(張夢徵)과 주원량(朱元亮)에 의해서 편찬된 기녀시가 총집으로 만력 44년(1616년)에 출판되었다. 원굉도(袁宏道)로 추정되는 인물인 유랑관주인(柳浪館主人)이 지은 『風月機關』이 『開卷一笑集』과 여러 일용유서(日用類書)에 수록되어 유전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주원량은 『풍월기관』의 문장에 새로이 주석을 달았고 장몽징이 기녀와 관련된 시를 수집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작업이 합쳐져 『청루운어』가 탄생하게 되었다.¹⁾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3045318)

** 慶尙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서울女子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招聘講義教授.

1) 현재 본 연구팀에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風月機關』의 작자가 누구인지 규명하고 『風月機關』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靑樓韻語』로 재편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하

『청루운어』는 기원을 출입하는 남성인 표객(嫖客)을 주요 독자로 삼아 그들에게 기원의 실제 모습을 알려주고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데 그 편찬 의도가 있다. 이에 『청루운어』를 통해 표객들의 행동강령, 기원기녀들의 진실된 모습과 거짓된 모습, 기녀들의 심리상태, 표객들의 유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중 본 논문에서는 표객이 기원을 출입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청루운어』에는 “만약 책략을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그물 친 것에 걸릴 것이다”²⁾, “옛 사람이 『표경』을 지은 것은 대개 후인이 그물에 걸릴 것을 대비해 책략을 세운 것”³⁾이라는 기록이 있다. 명대 기원이 극성하고 남성들의 기루 출입이 빈번하게 되면서 기원 출입의 지침서가 필요했고, 그들이 그곳을 출입하면서 준비해야하거나 경계해야 할 사항들이 『청루운어』를 통해 퍼지게 되었다.

명대 중엽 이후에 전국적으로 창기가 번창했던 모습은 사조제(謝肇淛)의 『五雜俎』에 잘 나타나 있다.⁴⁾

현재 창기는 천하에 가득 널려져 있다. 대도시에는 대부분 몇 천 명이 넘었고, 그 외에 산간 벽지 곳곳에도 있었다. 하루 종일 문에 기대어 웃음을 팔고 매음을 하며 생활하였다. 장안의 교방 관리들은 그 세금을 거두어 들었는데 이를 지분전(脂粉錢)이라고 하였다. 군현에 예속되어 있는 것을 악호(樂戶)라 했고 명령만 따를 뿐이었다. 당나라와 송나라 때에는 모두 관기로 술시중을 들었는데 명초에도 여전히 그러했다. 선덕(宣德)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금지하였으나 사대부들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따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록 공식적으로는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지만 항상 넘쳐났다. 또한 관아에 속하지 않고 사가에 거하며 매음을 하는 자

고 있다.

2) 『靑樓韻語』: “若不運籌, 定遭設網.” (張夢徵 彙選·朱元亮 輯註, 『中國古代版畫叢刊二編·靑樓韻語』[第四輯], 上海古籍出版社, 1994년, 40쪽. 이하 서지사항은 생략함.)

3) 『靑樓韻語』, 40쪽: “古人著嫖經, 蓋爲後人遭網者運籌也.”

4) 『五雜俎』卷八: “今時娼妓布滿天下, 其大都會之地動以千百計, 其他窮州僻邑, 在在有之. 終日倚門, 賣笑賣淫爲活. 而京師教坊官收其稅錢, 謂之脂粉錢. 隸郡縣者則爲樂戶, 聽使令而已. 唐宋皆以官伎佐酒, 國初猶然, 至宣德初始有禁, 而縉紳家居者, 不論也. 故雖絕迹公庭, 而常充軀. 又有不隸於官, 家居而賣奸者, 爲之士妓, 俗爲之私窠子.”

를 토기라 하였는데, 속칭 ‘私窠子’라고 하였다.

그리고 장대(張岱)의 『陶庵夢憶』에는 기녀가 곱게 꾸미고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묘사하며 명말 기원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⁵⁾

초관(통관세를 받는 곳)을 가로질러 건너서 반 리쯤 가면 골목으로 이루어진 곳이 9개다. 골목이 아홉 개라 무릇 골목의 좌우전후로 골목이 돌고 꺾이고 한 곳이 수백 개나 된다. 골목의 입구는 좁고 구불구불하였으며, 마디마디마다 잘 꾸며진 집들과 밀실이 있었다. 명기와 못생긴 기녀들이 섞여 그곳에 거처하였다. 명기들은 깊이 숨어 있어서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안내인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었다. 못생긴 기녀는 많아서 5,6백여 명이 되는데, 저녁 무렵이 되면 창기들은 두껍게 칠하고 향욕을 하고 골목 입구로 나와, 다관과 주루 앞에 기대어 배회하며 다리를 뻗고 앉아있기도 했는데 이것을 일컬어 ‘참관’이라고 했다. 다관과 주루의 언덕 위 아래에 청사초롱이 환하게 켜지면, 흥터로 어그러진 기녀는 주렴 뒤에 있고 큰 발을 가진 기녀는 문지방 뒤에 있으니 등불 앞과 달빛 아래에서는 사람의 제 모습을 볼 수 없으니, 소위 ‘분가루 하나로 백가지 추함을 덮어준다’고 하는 말은 바로 화장의 위력이다. 방랑객과 나그네가 베틀 북처럼 끊임없이 오고갔으며, 눈동자를 돌리며 서로 보다가 마음에 드는 자가 있으면 앞으로 다가가 그를 잡아끌고 갔다. 창기들은 갑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손님을 맞이하며 앞서 가고 (손님은)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갔다. 골목에 이르면 망을 보는 사람이 있어서 골목을 향하여 ‘모모 아가씨, 손님 오셨어’라고 외치면 안에서 우레와 같은 대답과 함께 햇불을 들고 즉시 나오면 하나하나 짝지어 들어가고 남아 있는 자

5) 『陶庵夢憶』卷四·「二十四橋風月」：“渡鈔關，橫亘半里許，爲巷者九條。巷故九，凡周旋折旋於巷之左右前後者，什百之。巷口狹而腸曲，寸寸節節有精房密戶，名妓·歪妓雜處之。名妓匿不見人，非向導莫得入。歪妓多可五六百人，每日傍晚，膏沐薰燒，出巷口，倚徙盤礴於茶館酒肆之前，謂之‘站關’。茶館酒肆岸上下，紗燈百盞，諸妓揜映閃滅於其間，炬鑿者簾，雄趾者闕，燈前月下，人無正色，所謂‘一白能遮百丑’者，粉之力也。游子過客，往來如梭，摩睛相覷，有當意者，逼前牽之去。而是妓忽出身分，肅客先行，自緩步尾之。至巷口，有偵伺者，向巷門呼曰：‘某姐有客了。’內應聲如雷，火燎即出，一一俱去，剩者不過二三十人。沉沉二漏，燈燭將盡，茶館黑魃無人聲。茶博士不好請出，惟作呵欠，而諸妓醵錢向茶博士買燭寸許，以待遲客。或發嬌聲，唱「擘破玉」等小詞，或自相謔浪嬉笑。”(張岱，〈陶庵夢憶〉，上海古籍出版社，2011，66-67쪽.)

는 불과 2,30여 명에 불과했다. 밤이 깊은 이경이 되면 등불은 모두 꺼지고, 다관은 어둠에 싸여 고요해졌다. 그러면 다관주인은 (기녀를) 내보내기가 마땅치 않아서 오직 하품이나 할 뿐이다. 여러 기녀들은 다관주인에게 한 치 남짓한 촛불을 사서 늦게 오는 손님을 기다렸다. 어떤 기녀는 교태로운 소리를 내어서 <벽과옥> 등의 소곡을 부르기도 했고, 어떤 기녀는 서로 실없이 장난하며 깔깔거리며 웃었다.

이렇듯 명대에는 상업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다관과 주사(酒肆)를 포함한 많은 기원이 생겨났고 많은 표객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면서 청루문화는 유례없는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렇다면 『청루운어』에는 표객이 어떻게 책략을 세우고 기원출입을 대비해야한 다고 적고 있을까? 그러한 행동강령은 『청루운어』의 경문 제6칙에서부터 제16칙 사이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⁶⁾

경문 번호	경문	경목	작품수	작품명	조대	지은이 (기녀명)
006	初耽花柳	初耽	시1수	「嘲友」	明	徐驚鴻
		久歷	시1수	「贈友」	明	趙觀
007	若要認真	認真	곡1결	「贈陳生曲」[黃鶯兒]	明	顧長芬
008	對新妓談	蒼姬	시1수	「有感」	明	馬月嬌
009	痛酒勿飲	吃醋	시2수	「寄鄭光業」	唐	楚兒
				「詰顧生」	明	劉元
010	寧使我支	閃	시3수	「繼進士李標作」	唐	王蘇蘇
				「謝友」	明	趙瑣
				「病中寄人」	明	董貞貞
011	初厚決非	初厚	곡1결	「喜裴生見過」[懶畫眉]	明	董貞貞
		久濃	시1수	「示友」	明	苗素
			사1수	「贈友」[調鸞山溪]	明	徐驚鴻
012	欲買其心	投好	시1수	「藍橋詩爲張生賦」	明	馬綬

6) 『『青樓韻語』 체례 연구』(권호중·이봉상, 『세계문화비교연구』, 49집) 부록에는 『청루운어』의 경문·수록작품·조대·기녀 등을 정리했고, 경문은 앞 4자만 표기했다.

013	志誠感默	志誠	사1수	「寄友」[調感恩多]	明	楊曉英
		動狂	시1수	「公孫大孃舞劍行贈周公瑕」	明	趙燕如
014	愛飲酒杯	愛飲	시5수	「司觴美人爲陳瓊芳」	明	徐驚鴻
				「答詩」	明	陳瓊芳
				「司酒」	明	趙觀
				「獨酌」1	明	薛素素
				「獨酌」2	明	薛素素
		知詩	시4수	「酬祝十三秀才」	唐	薛濤
				「校書」	明	趙觀
				「分韻」	明	趙觀
「謝王徵君敘詩」	明			薛素素		
015	更要出語	出語	시1수	「贈友」	明	衛紫英
016	伴黑者休	×				

위의 표에서 보듯이 11칙의 경문에는 총 14개의 경목을 두어 25수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그 행동강령을 살펴보면 기원을 출입하며 기녀를 대할 때 노련함을 발휘해야하고, 비위를 잘 맞추어야 하며, 지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말을 함에 있어서 시의적절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청루운어』 편집자가 표객이 기원을 출입할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행동강령으로 제시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경문과 그 아래 수록된 경문주석과 작품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편집자가 어떻게 그 내용을 기록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嫖客의 風流守則

1) 노련함 발휘하기(老成熟念)

기원을 드나드는 남성들에게 노련하고 심사숙고한 후 행동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특히 처음 기원에 출입하여 이 방면에 경험이 없는 표객들이 주의해야 함을 경문 제6칙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처음으로 화류계를 탐닉하는 자는 노련함이 가장 필요하다. 풍진을 오랫동안 겪은 자는 어찌 꼭 심사숙고해야 하겠는가.⁷⁾

이 경문에 대해 주원량은 “이 도에는 본래 왕도가 없지만, 처음으로 탐닉하는 손님은 특히 여러 가지를 헤아려야만 한다.”⁸⁾고 그 경문주석에서 보충설명을 했다. 즉, 기원 출입하는 남성에게 노련함은 필수 조건이고 특히 처음 기녀와 교류하기 시작한 남성들은 다방면으로 많은 것을 고려해야 손해를 보지 않음을 일깨워주는 말이다.

처음 본 기녀가 후대하며 잘해주는 것에 현혹되어 그곳에 빠져 모든 것을 다 주지 말 것을 경고하며 “처음에 잘해주는 것은 결코 본심이 아니고, 오래 무르익어야 비로소 참뜻이 됨”⁹⁾을 경문 제11칙에서 다시 강조한다. 그 아래 경목(經目) “처음에 잘해주는 것(初厚)”에는 명대 기녀 동정정(董貞貞)의 곡 「배생이 방문해 줌을 기뻐하며(喜裴生見過)」[懶畫眉]¹⁰⁾ 1결이 수록되었다.

相逢花下乍停鑣, 꽃 아래 서로 만나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便覺傾心愛楚腰, 곧바로 기우는 내 마음 깨닫고 미인을 사랑해 주시니,
春情能不爲君拋, 춘정을 어찌 그대에게 던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片時相對相傾倒, 짧은 순간 마주하고 마음 기울게 되었는데,
何必琴心暗裏挑, 굳이 거문고에 마음실어 몰래 저를 유혹할 필요 있나요.

기녀 동정정은 배생(裴生)을 만나게 되어 기뻐하는 마음을 작품에서 표현했다. 배생과 동정정은 만나자마자 짧은 시간 안에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의 감정을 상대에게 전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기울었기 때문에

7) 『靑樓韻語』, 46쪽: “初耽花柳, 最要老成, 久歷風塵, 豈宜熟念.”

8) 『靑樓韻語』, 46쪽: “此道原無慣家, 初耽者, 更須斟酌.”

9) 『靑樓韻語』, 52쪽: “初厚決非本心, 久濃方爲實意.”

10) 『靑樓韻語』, 52쪽.

굳이 ‘거문고에 사랑의 감정을 실어 유혹할’ 필요가 없다. 거문고 연주를 통한 사랑의 표현은 전한(前漢) 문인 사마상여(司馬相如)와 탁문군(卓文君)의 고사로부터 시작된다. 그 두 사람은 거문고를 매개로 하여 사랑의 감정을 확인한 뒤에 서로 의기투합하여 야반도주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 작품에서도 거문고는 배생이 동정정을 유혹할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기녀 동정정은 배생을 만나고 난 후 바로 배생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굳이 거문고를 연주하여 상대를 유혹할 필요가 없었다.

만나자마자 본인을 향한 상대방의 호감을 확신하게 되면 다른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 없이 쉽게 상대의 마음을 얻게 되고, 혹은 상대의 마음을 거짓으로 이용하여 잇속을 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라는 것이 경문의 요지이다. 경문의 주석자는 그래도 간혹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보고서 남다르다고 할 만한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많지는 않다.”¹¹⁾고 경문주석에서 밝히고 있다.

다음 작품은 “오래 무르익음(久濃)”이라는 경목 아래에 실린 명대 기녀 서경홍(徐驚鴻)의 작품 「벗에게 주다(贈友)」[調鷺山溪]¹²⁾이다.

白頭如故,	흰 머리 전과 같아도,
肯把須臾負!	어찌 한 순간도 거슬리리요!
縉縉幾年餘,	꼭 붙어 있기를 몇 년여,
無日不形隨影顧.	하루도 빠짐없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네
好時偎倚,	좋은 시절은 서로 기대고,
病裏扶持,	병들면 서로를 부축하니,
比翼鳥連理枝.	비익조와 연리지도
難並雙心固.	우리 두 마음의 굳셈과 나란히 하긴 어려우리.
擁衾聯臂,	이불을 덮고 서로 팔을 끌어당기며,
細細和伊訴.	이런 저런 일을 그대에게 호소한다.
聞想結交初.	가만히 처음 사귄 때를 생각해 보니,

11) 『靑樓韻語』, 52쪽 : “一見稱奇者有之, 然不可多得.”

12) 『靑樓韻語』, 53쪽.

經受過許多挫折. 무수한 좌절을 겪었네.
 鍾情在我輩. 변치 않는 사랑 우리에게 있으니,
 得常伴多情. 다정한 님을 항상 짝할 수 있다면,
 煩惱也成歡度! 번뇌도 즐거움이 되어 지나 가게 되리!

이 작품은 서경홍과 그녀가 사모하는 사람 사이의 감정이 비익조와 연리지 보다 두텁게 형성되어 있음을 표현했다. 처음 서로에 대한 마음이나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보다는 시간이 지난 현재 두터운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번뇌와 고난도 즐거움이 되어 지나갈 것이라며 오랜 기간 동안 더욱 탄탄해진 사랑을 읊고 있다. 이러한 진실된 감정은 만나자 마자 호의적으로 대한다고 해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붙어 있기를 몇 년여, 하루도 빠짐없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무수한 좌절을 겪고’ 오래 무르익은 후에야 견고한 상태로 발전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비록 작품에서 표객이 기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제11칙 경문을 적고 이 작품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기원에 출입하며 기녀들과 교류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녀들이 원하는 많은 것을 제공해줄 것이 아니라 노련함을 발휘하여 시간을 두고 천천히 유대 관계를 쌓아가야 진정한 감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 편자는 표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청루출입 수칙을 『청루운어』 앞부분의 경문에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작품을 그 아래 배열하고 있다.

2) 詩酒를 겸비하기(知詩愛飲)

표객과 기녀의 교류에 있어서 시사 작품에 대한 조예와 창작 능력과 술을 마시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이에 『청루운어』에는 표객들이 앞서 논의한 노련한 행동 강령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에 흥미가 있는 기녀와 음주를 좋아하는 기녀를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를 적고 있다. 대표적인 경문은 제

14칙으로 다음과 같다.

(기녀가) 술 마시기를 즐기면 항상 유명(劉伶)의 재량을 준비하고, 시구를 능숙하게 안다면 두보(杜甫)의 재능을 많이 이야기하라.¹³⁾

기녀가 술 마시기를 좋아하면 서진(西晉) 시기의 유명(劉伶)처럼 술을 잘 마셔야 하고, 기녀가 시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나면 표객은 당대(唐代) 천재시인 두보의 시 같은 대화내용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대에 시를 할 줄 아는 창기들이 많아지게 된 것에 대해 왕서노(王書奴)는 명대의 문단에 일어난 복고운동의 영향과 명대 사대부들의 범죄로 인하여 가족들이 교방에 들어가게 된 일, 이 두 가지를 들고 있다.¹⁴⁾ 그리고 장학성(章學誠)은 기녀들이 문학적 소양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婦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명대의 가혹한 정치로 사대부들이 몰락하고 그 영향이 처첩에까지 파급되어, 시와 예(禮)의 대가들까지 대부분 복리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그 가운데 색과 예를 잘 겸비하고 시를 매우 잘 지어서 사대부들이 따라서 수창했다.¹⁵⁾

당시 수준 높은 시재와 예술적 심미안을 보유하고 있던 기녀와 문인들과의 교류는 이렇게 하여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기녀와 표객은 서로 환심을 사기위해 상대방의 기호에 맞춰야 했다. 표객은 기원에 들어가서 기녀가 시사 창작에 능하다고 판단되면 두보와 같은 시인에 대해 많이 언급하며 기녀와의 많은 대화를 진행하여 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에 청루운어 편집자는 경문 제14칙에서 “(기녀가) 시구를 능숙하게 안다면 두보

13) 『靑樓韻語』, 56쪽 : “愛飲酒杯, 常備劉伶之具, 擅知詩句, 多談杜甫之才.”

14) 왕서노지음·신현규편역, 418-419쪽.

15) 『文史通義校注·婦學』: “前朝虐政, 凡縉紳籍沒, 波及妻孥, 以致詩禮大家, 多淪北里. 其有妙兼色藝, 慧擅聲詩, 都士大夫, 從而酬唱.”(章學誠著·葉瑛校注, 『文史通義校注·婦學』, 中華書局, 2004년, 535쪽.)

의 재능을 많이 이야기하라.”고 하며 문학적 조예가 뛰어난 기녀를 만나면 표객의 지적인 면을 충분히 드러내야 함을 기록한 것이다.

문학작품에 조예가 깊은 기녀들은 기방을 출입하는 문인 남성들의 대화 상대가 되어 그들의 고민을 듣기도 하고, 조언을 주기도 하며, 혹은 그들을 위해 마음 아파하기도 한다. 기녀와 문인 간의 시사 작품을 통한 감정교류는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기녀는 작품 속에서 남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읊기도 했고, 문인 역시 그들의 작품에서 기녀에 대한 마음을 담아내기도 했다. 기녀들의 수준 높은 창작능력은 문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다음은 경문 제14칙에 포함된 “시를 알다(知詩)”라고 하는 경목에 수록된 작품이다.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축씨(祝氏)를 위로하는 설도(薛濤)의 작품으로 내용을 통해 상대 남성의 창작능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아래에 「축십삼수재에게 응수하며(酬祝十三秀才)」¹⁶⁾를 살펴본다.

浩思藍山玉彩寒, 드넓은 포부는 남산의 옥빛처럼 차가우니,
水囊敲碎楚金盤. 얼음주머니는 초나라 철쟁반 깨뜨리겠네요.
詩家利器馳聲久, 시인의 뛰어난 재능은 명성 날린 지 오래인데,
何用春園勝上看. 과거시험 합격 방을 볼 필요 있겠는가.

이 작품은 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축수재(祝秀才) 즉 축십삼(祝十三)을 위로하기 위해 것이다.¹⁷⁾ 설도는 축십삼의 시재를 알아볼 정도로 이미 뛰어난 창작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설도의 작품 속에서는 축씨의 재능을 칭찬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뛰어나다. 설도는 남산의 옥으로써 축씨의 드넓은 생각을 칭찬했고, 축씨의 맑은 성품을 차가운 시를 담은 ‘얼음주머니’에 비유하여, 그것이 중국에서 이름난 ‘철쟁반’인 ‘초금반(楚金盤)’을 깨뜨릴 정도라 표현했다. 3구와 4구에서 축씨의 뛰어난 재능은 이미 널리 퍼져있다고 하며, 과거에 낙방한 그를 위로하고자 하였다. 비록 작품 속에서 기

16) 『靑樓韻語』, 58쪽.

17) 薛濤 지음, 류창교 역해, 『설도시집』,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101쪽.

너 설도의 문학적 기호에 맞추는 축십삼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설도가 축십삼의 낙방을 진심으로 마음아파하고 그를 위로하게 된 것은 축십삼이 이미 뛰어난 시문창작 능력을 지니고 있어 설도의 환심을 샀기 때문이다.

표객과 기녀의 수준 높은 시문 창작·감상 능력과 지적 능력은 양측의 교류를 보다 원활하게 해주는 조건이었으며, 둘의 기호가 부합되는 경우 두 사람의 관계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명말 청초의 전겸익(錢謙益)이 명기 유여시(柳如是)와 깊은 사랑에 빠져 부부가 되는 데에는 두 사람의 학문적 기호가 맞았기 때문이다. 부부가 된 후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학문을 탐구했고, 둘은 사상·취미·식견·포부 등의 방면에서 의기투합하는 바가 많았다.¹⁸⁾ 이밖에 명 말기 모벽강(冒辟疆)은 진회(秦淮)의 기녀 동소완(董小宛)을 기적(妓籍)에서 없애고 부부가 되었다. 동소완은 날마다 아름다운 동산이나 서재에 앉아 거문고를 타거나 차를 마시며 인물과 산수를 품평하고 금석과 골동품을 감별하였다. 그러다가 간간이 멋진 시구를 읊어 얻거나 시와 역사를 수집하면, 반드시 벼루를 들어다 그 자리에서 기록했다.……함께 얻은 즐거움에 이들 두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는 이런 즐거움이 아직 없을 것이다.’고 늘 말하곤 했다.¹⁹⁾

명대 기녀와 문인들과의 이러한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명대 중후기 진회(秦淮) 명기 103명과 교류한 문인은 대략 150여 명 정도 되었는데,²⁰⁾ 그들은 서로 작품을 창화하면서 서로 간에 교류하며 발생한 일화를 묘사하기도 했다. 이렇게 문인들은 기녀들의 수준과 안목에 맞춰야 그녀들의 환심을 살 수 있었으며, 시문창작력은 기원 출입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한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음주는 기원에서 기녀가 표객을 상대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다.

18) 孫立群지음·이기홍역, 『중국 고대선비들의 생활사』, 인간사랑, 2014년, 550-551쪽.

19) 張明弼, 『冒姬董小宛傳』: “與辟疆日坐畫苑書園中, 撫桐瑟, 賞茗茶, 評品人物山水, 鑑別金石鼎彝, 閒吟得句與采輯詩史, 必捧硯席爲書之.……相得之樂, 兩人恒云天壤間未之有也.”

20) 劉坡의 『中晚明秦淮名妓考略』(吉林大學, 碩士, 2007) 17쪽의 도표와 陶慕寧의 『青樓與青樓文學』(東方出版社, 1996) 부록 참조.

표객이 기원에 출입할 때 음주에 능해야 함을 경목 제14칙에서 “기녀가 술 마시기를 즐기면 항상 유령의 재량을 준비한다”고 적었다. 서진 시기의 문인 유령처럼 음주에 능하면 기녀와의 교류가 원활하기 때문에 술을 잘 마시는 것 또한 기원출입에 필요한 요소라고 『청루운어』 편집자는 생각한 것이다.

아래에 제시하는 명대 기녀 조관(趙觀)의 작품 「술을 차리며(司酒)²¹⁾」는 경문 제14칙의 경목인 “술을 즐김(愛飲)에 수록되어 있으며 기녀가 문인들과 술을 마실 때 술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가를 엿볼 수 있다.

花亭月榭酒腸寬, 달 감상하는 화려한 정자에서는 주량이 관대하고,
 醉殺詞人自足歡, 만취한 사인은 스스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네요.
 但有青樽司命在, 오직 술잔 있으면 목숨 관장하는 사명신 함께 하시니,
 何妨觴政虐如殘, 주령이 잔인한 듯 가혹한들 무슨 상관있나요?

이 작품은 기녀가 기원에 방문한 표객을 위해 술상을 차리며 느낀 감회를 적은 것이다. 기원의 술자리에서는 술을 마시는 양이 매우 많고, 많은 술을 마신 표객은 결국 주흥에 젖는다. 그러나 기녀는 만취한 손님을 비난하지 않고 목숨을 관장하는 신이 함께 하니 주령이 아무리 가혹해도 별 탈이 없다고 표현했다. 작품에서 기녀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직접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표객에게 음주를 권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이 작품을 제14칙 경문 아래에 수록함으로써 『청루운어』 편집자는 ‘기원출입 시 술을 잘 마시는 능력’도 갖추어야 함을 제시했다.

3) 기녀 비위맞추기(買心投好)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맞추면 마음을 얻을 수 있으니, 기녀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꿰뚫어 그것을 주고 비위를 맞추어 그녀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도록 조언한다. 경문 제12칙에는 “그 마음을 사려면 먼저

21) 『靑樓韻語』, 57쪽.

좋아하는 것에 맞추라.”²²⁾고 하며 그 경문주석에서 ‘기녀는 좋아하는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으니, 자신의 능력을 가늠하여 상대가 원하는 것에 맞추면 그 마음을 얻게 되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²³⁾고 한층 상세하게 일깨워준다. 제12칙 경문에 포함된 경목 “좋아하는 것에 투합하다(投好)”에는 명대 기녀 마수(馬綬)의 작품 「남교시, 장생을 위해 짓다(藍橋詩爲張生賦)」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시에는 “기적에서 벗어나 시집가는(從良)” 것을 꿈꾸는 기녀가 간절히 원하는 선물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에 마수(馬綬)의 「남교시, 장생을 위해 짓다(藍橋詩爲張生賦)」²⁴⁾를 살펴본다.

自別仙郎已數秋, 당신과 헤어지고서 이미 몇 번의 가을인데,
寧期玉杵暗相投. 어찌 옥 절굿공이 몰래 주기를 기다렸겠는가?
締姻深感裴航意, 인연 맺어 배항의 마음에 깊이 감동하며
肯逐藍橋逝水流. 남교의 흘러가는 물 따라 가고자 하네.

이 작품은 裴鏞(배형)의 『傳奇』·「배항(裴航)」에 보이는 고사를 전고로 삼고 있다.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남전현(藍田縣) 동남쪽에 남계(藍溪)라는 계곡에는 신선의 동굴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배항은 월궁(月宮)에서 옥토(玉兔)가 사용하던 옥 절굿공이를 찾아내어 그것을 빙례로 삼고, 신선이 준 약을 찌어서 선녀 운영(雲英)과 결혼하게 된다. 배항은 남계의 다리인 남교(藍橋)에서 선녀 운영을 취해 신선이 되어 함께 떠났다고 한다. 이 고사에서 유래하여 옥 절굿공이는 후일 구혼의 예물을 가리키게 되었다. 위의 시에서도 옥 절굿공이는 남녀가 다시 해후하게 되는 중요한 물건이 되었다. 장생은 헤어지고 수년이 지난 상황에서 기녀 마수(馬綬)에게 혼인을 청하는 예물의 상징인 ‘옥 절굿공이(玉杵)’를 건내며 마음을 얻고자 한다. 마수는 깊은 감동을 받고 이내

22) 『靑樓韻語』, 53쪽 : “欲買其心, 先投所好.”

23) 『靑樓韻語』, 54쪽 : “색을 탐하고 선물을 좋아하며, 시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등, 갖가지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구비하고 있으니, 반드시 자신의 능력을 가늠하여 그것에 맞추면, 어찌 마음을 살 수 없음을 근심하리오.(好色·好貨·好詩·好酒, 具諸種種好尚, 須量自己力量投之, 何患心不可買.)”

24) 『靑樓韻語』, 54쪽.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할 것을 표현했다. 이 작품은 표객이 기녀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것에 맞추어 기녀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청루운어』 편집자는 제12칙 경문의 경목 “좋아하는 것에 투합하다(投好)”에 본 작품을 수록한 것이다.

기녀들은 기적(妓籍)에서 벗어나 문인과 혼인하여 양인 신분을 갖게 되는 것, 즉 “從良”하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아무리 유명한 기녀라도 양가로 편입되어 규방의 여인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초라하고 쓸쓸하게 혼자서 노년을 보내게 되기 때문이다. 기적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기녀에게 혼인을 상징하는 물건인 옥절구는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 될 것이다. 원하던 선물을 받은 기녀는 남성이 원하는 바를 쉽게 들어주게 되고, 남성은 기녀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행동하면 기방출입 시 큰 실수는 하지 않게 되고, 기녀의 호감을 살 수 있게 된다. 제13칙 경문에서는 “지극정성으로 성실히 대하면 과묵한 기녀를 감동시키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으로 젊은 기녀를 움직이게 한다.”²⁵⁾고 기록하며, 그 경문주석에서 “이 또한 좋아하는 바에 투합하는 한 모습으로 서로가 마음이 맞아야 비로소 감동시키게 된다.”²⁶⁾고 했다. 다음은 제13칙 경문에 포함된 경목인 “마음이 진실함(志誠)”에 수록된 명대 기녀 양효영(楊曉英)의 작품 「벗에게 주다(寄友)」[調感恩多]²⁷⁾이다. 이 작품은 두 사람의 진실된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感君情最契,	그대의 사랑 내게 가장 맛나 느껴,
執手西陵誓.	손을 잡고 서쪽 언덕에서 맹세하네.
共慚楊柳枝. 逐風吹.	함께 수줍어했네, 버들가지 바람 따라서 날림을.
佳期莫漫成虛謬.	좋은 기약 아득히 거짓이 되게 하지마세요,
願網繆, 願網繆.	동여매어 있길 원하네. 동여매어 있길 바라네.

25) 『靑樓韻語』, 54쪽 : “志誠感默, 叫跳動狂.”

26) 『靑樓韻語』, 54쪽 : “此亦投所好之一端也. 彼此情性相投, 方能感動.”

27) 『靑樓韻語』, 55쪽.

更祝檀郎, 다시 또 낭군에게 바라노니,
百年思好速! 백년토록 좋은 짝으로 그리워해주시길!

진실된 마음 서로 통하여 백 년 토록 함께 하며 그리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서로 동여매어 있기 원하며’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은 경문에서 ‘서로 마음이 맞아 감동하게 된다.’는 경문주석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즉,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면 기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니, 기녀가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고 진심으로 대할 것을 권한다. 이는 앞 절에서 기녀의 능력에 맞추어 지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기루 출입수칙이라고 언급하며 인용한 제14칙 경문 “술 마시기를 즐기면 항상 유령의 재량을 준비하고, 시구를 능숙하게 안다면 두보의 재능을 많이 이야기하라.”²⁸⁾는 문장의 요지와도 통한다.

4) 때에 맞는 말하기(出語隨時)

기원에서 여러 기녀를 마주하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한 후에 해야 한다. 이에 기녀의 여러 조건이나 배경에 따라 적당한 언사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것은 표객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이에 대해 경문 제8칙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새로운 기녀와 마주하고서 옛 기녀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새로운 기녀는 의심을 품는다. 늙은 기생과 어울리면서 어린 기생이 나이가 적음을 예뻐하면 늙은 기생이 낙담한다.²⁹⁾

새로운 기녀나 젊은 기녀 앞에서 이전 기녀와 늙은 기녀에 대해 언급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왜냐하면 “늙음은 기생이 가장 금기하는 것이고, 늙은 기

28) 『靑樓韻語』, 56쪽 : “愛飲酒杯, 常備劉伶之具, 擅知詩句, 多談杜甫之才.”

29) 『靑樓韻語』, 48쪽 : “對新妓談舊妓之非, 則新妓生疑. 調蒼姬憐雛姬之小, 則蒼姬失意.”

생을 마주하고 어린 기생을 어여삐 여기면 심히 감당할 수 없기”³⁰⁾때문이다. 본 경문에 포함된 경목 “늙은 기생(蒼姬)”에는 명대 기녀 마월교(馬月嬌)의 시 「유감(有感)」³¹⁾이 수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悵望鉛華不易留,	아름다운 청춘 잡아두기 쉽지 않음을 슬피하노니,
殘粧猶帶舊風流.	다 지워진 화장에 지난날 풍류 여전히 묻어있네.
傳香尙憶窺青瑣,	향 피우며 아름다운 창 엿보던 일 아직 기억하는데,
覽鏡那堪漸白頭.	거울 바라보니 점점 쇠는 머리 어찌 감당하라?
寂寞朱顏羞閉月,	적막하게 붉은 얼굴은 절세의 미인이라지만
蕭條紈扇欲藏秋.	쓸쓸하게 비단 부채는 가을되어 쓸모없어졌네.
近來不分諸年少,	요즘 들어 여러 젊은이들,
夜夜吹簫向鳳樓.	밤마다 피리 불며 봉루로 향할 줄이야!

이 작품은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을 다 잃고 화장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늙은 기녀의 쓸쓸한 심정을 묘사했다. 마월교(1548-1604)의 이름은 수진(守眞)이고, 자는 월교(月嬌)·현현자(玄玄子)·현아(玄兒), 호는 상란자(湘蘭子)·상란(湘蘭)인데 난을 잘 그려서 상란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유명하다. 그녀와 교유한 문인으로는 주국화(朱國華)·요형벽(饒荊璧)·진호산(陳湖山)·전경백(錢景伯)·육필(陸弼)·뇌기생(雷奇生)·장유우(張維于)·왕치등(王禪登) 등이 있다. 이 중 왕치등은 그녀가 몸을 맡겨 섬기고자 했던 인물이었으나, 그는 예교와 신분상의 제약으로 그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604년 소주(蘇州)에서 왕치등의 고회연이 열렸을 때, 56세의 마월교는 축하연에 참석했고, 그때 왕치등의 부인은 왕치등과 마월교 두 사람이 함께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다음 날 마월교는 왕치등과 눈물로 이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³²⁾ 마월교가 왕치등을 사모했던 나이는 이미 젊음이 퇴색되고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린 때였다. 기녀로써 전성기가 지나

30) 『靑樓韻語』, 48쪽 : “前船就是後船眼, 故疑易生. 老者妓所最忌. 對老憐少, 不堪之甚.”

31) 『靑樓韻語』, 48쪽.

32) 白槐, 『中華歷代名妓』, 上海大學出版社, 2009년, 170쪽.

버린 자신을 추위가 오면 다시 광주리 속으로 들어가는 ‘가을 부채’에 비유하며 쓸모없게 된 자신의 처지를 표현했다. 젊은 시절 아름다웠던 기녀가 나이 들면서 찾는 이가 없어지니 화려한 치장도 하지 않고, 다 지워진 화장한 얼굴로 쓸쓸히 옛날을 회상한다. 지금 늙어버린 기녀는 찾는 이가 없고, 나이 구분 없이 남자들은 젊은 기녀를 찾아가는 현실을 표현하며 자신의 처량함을 나타냈다.

신체적으로 노화가 진행되고 찾아오는 손님도 뜸해지는 나이 든 기녀의 심리적인 상태는 이미 나약하다. 만약 이렇게 나이 들어 상심한 기녀 앞에서 아름다운 젊은 기녀를 언급하는 것은 늙은 기녀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말이 되니 상황에 맞는 말을 제대로 구사해야 한다. 즉, 기녀들을 상대할 때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하고 상황에 알맞은 말을 시의적절하게 해야 하는 것은 청루 출입에 필요한 하나의 행동 수칙이다. 경문 제15칙과 경문 주석에서 그 취지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말을 할 때는 시의적절해야 하고, 또한 목소리를 바꾸어 금기에 저촉되는 것을 꺼려야 한다.³³⁾

상황에 어긋나지 않게 적당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시당하지 않고 칭송을 받게 된다. “자제자들이 ‘在行(전문가)’이란 두 글자를 말할 때는, 대부분은 내뱉는 말이 시기에 맞을 때”³⁴⁾라고 경문주석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는 사람을 상대할 때 말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반영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는 언변의 중요성은 “시커먼 기녀와 짝하면 흰색의 밝음을 말하지 말아야 하고, 가난한 기녀와 마주하면 부자의 사치스러움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³⁵⁾고 하는 경문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렇게 때와 장소에 적당한 말을 할 줄 아는 것도 청

33) 『靑樓韻語』, 60쪽 : “更要出語隨時, 亦忌轉喉觸諱.”

34) 『靑樓韻語』, 60쪽 : “子弟家稱在行二字, 半在談吐及時.”

35) 『靑樓韻語』, 61쪽 : “伴黑者, 休言白者之瑩, 對貧者, 勿誇富者之奢.”

루 출입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 강령이라 할 수 있다.

5) 적당한 질투하기(寡醋休嚙)

남녀 관계에 있어서 적당한 질투는 사랑의 감정을 배가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는 음주 행태는 남녀 간의 교류에 있어서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될 모습이다. 청루를 출입함에 있어서 적당한 질투심과 통음하지 않는 음주문화는 기본적인 수칙이며 이를 제9칙 경문과 경문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경문: 잔뜩 취하는 술은 마시지 말고, 어설픈 질투는 하지 말라.³⁶⁾
 경문주석: 통음하는 것은 술에 곧드레만드레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옷에 흥건히 구토하여 정말 질리게 한다. 질투하는 것 또한 재미있는 일
 인데, 다만 질투가 적으면 흥미가 없으니 어찌 지겹지 않겠는가?³⁷⁾

이 경문에는 술과 관련된 경목은 없고 “질투(吃醋)”라는 경목 한 조목이 있으며 여기에는 당대 기녀 초아(楚兒)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應是前生有宿冤,	分明 전생에 목은 원한이 있다지만
不期今世惡姻緣,	지금 생애의 악연을 생각지 못했네.
蛾眉欲碎巨靈掌,	미인은 거령의 손바닥을 부수려고 하니
雞肋難勝子路拳,	허약한 몸은 자로의 권법을 감당치 못하네.
抵擬嚇人傳鐵券,	단지 사람을 놀라게 하려고 철권을 전하며
未應教我踏金蓮,	나로 하여금 황금 연꽃을 밟지 못하게 하네.
曲江昨日君相遇,	곡강에서 어제 당신과 마주쳤다가
當下遭他數十鞭,	바로 그때 그에게 수십 대 매질을 당했네.

이 시는 초아가 정광업에게 주는 것인데, 초아의 자는 윤낭(潤娘)이며 작품

36) 『靑樓韻語』, 49쪽 : “痛酒勿飲, 寡醋休嚙.”

37) 『靑樓韻語』, 49쪽 : “痛飲者, 爛醉不支, 淋漓可厭. 吃醋亦趣事, 但寡則無味, 豈不膩臉.”

창작 배경은 『北里志』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초아 윤낭은) 물러날 나이가 되어 만년현(萬年縣)의 경비를 맡는 장수인 곽단(郭鍛)에게 바쳐져서 다른 곳에 거처하였다. 그런데 윤낭은 기녀 가운데에서도 제멋대로 행하는 일이 특히 심했고, 붙잡혀서 매어지게 되어도 마음을 고치지 않았다. 곽단은 주로 업무가 바쁘게다가 본집에 정실이 있어서 윤낭의 집에 오는 것은 극히 드물었다. 그래서 옛 친구들이 윤낭이 사는 곳을 방문하면 대부분 작은 창 사이에서 서로 부르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안부를 묻기도 하고, 혹은 수건이나 쪽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곽단은 바로 친인방(親仁坊)에 사는 곽자의(郭子儀)의 후손인데, 사람됨이 정상이 아니고 흉악하고 독해서 매번 (윤낭이 옛 친구 만나는 것을) 알게 되면 매우 심하게 매를 때리고 모욕을 주었다. 윤낭은 비록 매우 분했으나, 그 후에도 결코 조금도 고치지 않았다. 일찍이 어느 날, 윤낭은 곡강(曲江)에서 곽단과 함께 전후 약 열 걸음 정도 사이를 두고 걷고 있었는데, 호부(戶部)의 일을 겸임하고 있는 정광업(鄭光業)이 이때 보곤(補袞)직을 맡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들과 만나게 되었다. 윤낭은 발을 걸어 올리고 그를 붙렸고, 정광업 또한 사람을 시켜 말을 전했다. 곽단은 이를 알고는 윤낭을 네거리 가운데로 끌고 가서 말채찍으로 때렸는데 그 소리가 매우 원망스럽고도 비통하여 구경꾼들이 담장과 같이 둘러싸고 보았다. 광업은 멀리서 이것을 보고서 매우 놀라 후회했으며 또한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음을 걱정했다. 광업은 다음날 일부터 길을 찾아 윤낭의 거처를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몰래 보니, 윤낭은 벌써 길 옆 창 아래에서 비파를 타고 있었다. 말을 멈추고 사람을 시켜 말을 전하니, 예쁜 편지를 가져와 광업에게 주었다.³⁸⁾

그 편지에 바로 위의 시가 적혀있었다. 이 작품은 기녀 초아가 기적에서 나

38) 『北里志』·「楚兒」: “近以遲暮, 爲萬年捕賊官郭鍛所納, 置於他所. 潤娘在娼中狂逸特甚, 及被拘繫, 未能悛心. 鍛主繁務, 又本居有正室, 至潤娘館甚稀. 每有舊識過其所居, 多於窗牖間相呼, 或使人詢訊, 或以巾箋送遺. 鍛乃親仁諸裔孫也, 爲人異常兇忍且毒, 每知必極笞辱. 潤娘雖甚痛憤, 已而殊不少革. 嘗一日自曲江與鍛行, 前後相去十數步, 同版使鄭光業(昌國)時爲補袞, 道與之遇, 楚兒遂出簾招之, 光業亦使人傳語. 鍛知之, 因曳至中衢, 擊以馬箠, 其聲甚冤楚, 觀者如堵. 光業遙視之, 甚驚悔, 且慮其不任矣. 光業明日特取路過其居偵之, 則楚兒已臨街窗下弄琵琶矣, 駐馬使人傳語, 已持彩箋送光業.” (손계·최령흠 지음, 최진아 옮김, 소명출판, 2013년, 62-66쪽.)

와 곽단이라는 남자에게 의지해 살고 있는 중에, 곡강에 나들이를 나갔다가 정광업을 만나 인사를 나눈 후 곽단이 이를 질투하여 초아를 매질했던 일화를 표현했다. 곽단의 질투가 작품 소재가 되었고 이에 이 작품은 “질투(吃醋)”라는 경목에 수록되었다. 수록된 작품에서 보이는 ‘질투’라는 감정은 정도가 지나쳐 부정적으로 묘사되기는 했지만, 『청루운어』에서는 적절한 질투는 오히려 남녀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통음하는 것은 술에 곤드레만드레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옷에 흥건히 구토하여 정말 질리게 하기에”³⁹⁾ 피해야 할 행동이라고 기록했다. 기원에서 음주는 빠질 수 없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흥청망청 마시며 분위기를 꺾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은 기녀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게 되고 표객은 기원에서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앞서 ‘술을 잘 마실 줄 아는 것’도 기원출입에 필요한 요소라고 밝힌 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청루운어』 편집자는 기녀가 많은 술 마시기를 원하면 그에 맞추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흥취를 이끌어 내는 정도로만 마시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술을 잘 마시되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기원출입에 필요한 하나의 행동 수칙인 것이다.

그밖에 기녀에게 버림받지 않도록 미리 계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문장이 보이기도 한다. 경문 제10칙에서 “차라리 내가 그녀를 붙잡고 있을지언정, 그녀로 하여금 나를 피하게 하지 말 것”⁴⁰⁾을 기술하며, 그 경문 주석에서 “그녀가 이미 딴 마음을 먹었어도 내가 곧 그것에 대비한 계책을 마련한다면 거의 피함을 당하지 않는다.”⁴¹⁾고 좀 더 상세하게 기녀와의 교류에서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본 경문에 포함된 “피함(閃)”이라는 경목에는 당대 기녀 왕소소(王蘇蘇)가 이표(李標)의 시에 화답하여 창작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작품에서는 이표가 왕소소에게 쫓겨난 일화를 담고 있다. 당대 진사 이표가 왕소소의 명성을 듣고 찾아갔다가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문전박

39) 『靑樓韻語』, 49쪽 : “痛飲者, 爛醉不支, 淋漓可厭.”

40) 『靑樓韻語』, 50쪽 : “寧使我支他, 莫教他閃我.”

41) 『靑樓韻語』, 50쪽 : “他旣生心, 我卽預爲之計, 庶不着閃.”

대 당한 상황은 『北里志』·『王蘇蘇』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술을 마시고 창에 시를 썼다. 소소는 처음에 이표를 몰라 제시를 달가워하지 않으며 ‘누가 낭군을 남게 하겠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지만, 이윽고 붓을 들고 이어서 화답했다.”⁴²⁾ 이표가 처음 왕소소에게 준 시는 아래와 같다.

春暮花枝繞戶飛. 저문 봄, 꽃가지 집 에워싸고 훑날리는데,
王孫尋勝引塵衣. 왕손은 명승 찾아 먼지 덮어쓰고 왔네.
洞中仙子多情態. 동굴 속의 선녀는 다정한 모습으로,
留住劉郎不放歸. 유랑 머물게 하고 돌려보내지 않는구나.⁴³⁾

이표는 저물어 가는 봄날 꽃가지 무성한 기원으로 찾아가서 시를 통하여서 한(漢)의 유신(劉晨)과 완조(阮肇)를 붙잡은 천태산(天台山)의 선녀처럼 왕소소가 자신을 머물게 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왕소소는 이표를 안으로 들이지 않고 되돌려 보냈다. 왕소소는 이표를 받아들여 머물게 하고픈 마음이 없었기에 이표의 시에 화답하여 「진사 이표의 시에 이어서(繼進士李標作)」⁴⁴⁾ 시를 지어 보내서 이표를 돌려보냈다.

怪得犬驚雞亂飛. 이상하게 개가 놀라고 닭이 어지러이 난다 했더니
羸童瘦馬老麻衣. 쇠약한 시동에 불품없는 말 타고 낡은 벼옷 입었네.
阿誰亂引閒人到. 누가 제멋대로 별 볼일 없는 사람을 끌어들었나,
留住靑蚨熱趕歸. 돈만 남겨두고 곧장 가버리시오.

불품없는 모습으로 기루에 온 이표에게 돈만 취하고 그를 돌려보내고자 하는 왕소소의 작품이다. 이 작품을 서로 주고받을 때 왕소소는 진사 이표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 불품없는 시동을 데리고 야윈 말을 타고 남루한 차림으로

42) 『北里志』·『王蘇蘇』, 111쪽: “飲次, 題詩于窓, 蘇蘇先未識標, 不甘題詩. 曰: ‘阿誰留郎君, 莫亂道.’ 因取筆繼和.”

43) 『北里志』·『王蘇蘇』, 111쪽.

44) 『靑樓韻語』, 51쪽.

기루에 온 이표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경목 “피함(閃)”에 수록된 이 작품은 기녀가 이표를 피하는 것을 묘사했고, 내용을 통해 이표가 왜 버림받게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기녀로 하여금 나를 피하게 하지 말 것”이라는 경문 내용을 잘 반영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기녀가 피하지 않는다.’는 경문주석을 달았고, 이 작품을 수록하여 버림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외모를 말끔히 단장하는 등의 ‘계책’을 마련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7. 결론

명대 중엽이후 창기업이 성행하게 되면서 그곳을 출입하는 표객도 급증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청루출입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청루운어』는 중요한 서적이 되었다. 그들은 『청루운어』를 탐독하면서 스스로 조심해야 할 행동수칙, 기녀들의 생활모습, 기녀들의 심리양상 등을 미리 숙지했고, 기녀들과 교류함에 있어서 실수를 범하지 않고자 했다.

그중 본 논문에서는 『청루운어』에 보이는 표객의 풍류수칙에 대해 다음의 5가지로 살펴보았다. 노련함을 발휘해야함을 논한 ‘老成熟念’, 풍류와 문학에 조예가 깊은 기녀를 상대하는 방법을 논한 ‘知詩愛飲’, 기녀의 기호에 맞춰 마음을 얻어야 함을 논한 ‘買心投好’, 시의적절한 언변을 발휘해야 함을 논한 ‘出語隨時’, 적절한 질투심을 활용해야 함을 논한 ‘寡醋休嚙’이다. 그리고 별도의 장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기녀에게 버림받지 않도록 미리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청루운어』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본문에서 서술했다. 이러한 조항들은 표객이 청루를 출입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강령으로서, 『청루운어』 전반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청루 출입의 행동수칙이 기록된 『청루운어』는 표객들에게 지침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백여 수라는 시를 수록하여 문학작품집의 역할을 겸하고 있어 당시 표객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서적이 되었을 것이다.

각 경문에는 그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주석이 실려 있고, 주석 아래에는 경문의 요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목을 두고 기녀가 창작한 작품을 수록하여 경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러나 『청루운어』의 편찬의도가 기원을 출입하는 표객들이 기녀들에게 속지 않고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기녀의 내면세계를 다룬 그녀들의 작품은 경문의 요지와 관계없는 것이 많았다. 경목이 경문의 요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또는 수록 작품이 경문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도 『청루운어』와 관련하여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며, 향후 그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參考文獻

- 권응상, 『멀티엔터테이너로서의 중국 고대 기녀』 소명출판, 2014.
- 薛濤 지음, 류창교 역해, 『설도시집』,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손계·최령흠 지음, 최진아 옮김, 『北里志』, 소명출판, 2013.
- 王書奴, 신현규 편역, 『중국장기사』 어문학사, 2012.
- 陶慕寧 『青樓文學與中國文化』 東方出版社, 1996.
- 白槐, 『中華歷代名妓』, 上海大學出版社, 2009.
- 謝肇淛 撰, 『五雜俎』, 上海書店出版社, 2011.
- 蕭國亮, 『中國娼妓史』, 文津出版社, 1996.
- 張岱, 『陶庵夢憶』, 上海古籍出版社, 2011.
- 張夢徵 彙選·朱元亮 輯註, 『中國古代版畫叢刊二編·青樓韻語』[第四輯], 上海古籍出版社, 1994.
- 齋藤茂, 申荷麗 譯, 『妓女與文人』 商務印書館, 2011.
- [日]小川陽一, 『日用類書による明清小説の研究』, 東京, 研文出版, 1995.
- [日]小川陽一, 『明代の遊郭事情 - 風月機關』, 東京, 汲古書院, 2006.
- 高菲, 『明代南京青樓音樂文化初探』 武漢音樂學院 碩士, 2006.
- 吳蕙芳, 『明清時期民間日用類書及其反映之生活內涵-以『萬寶全書』爲例』, 國立政治大學 歷史學系 博士, 民國89年.
- 王艷紅, 『明代女性作品總集研究』, 上海師範大學 碩士, 2006.
- 劉坡, 『中晚明秦淮名妓考略』, 吉林大學, 碩士, 2007.
- 李曉寧, 『晚明風月文化:以『青樓韻語』爲探討核心』, 臺灣國立中正大學 碩士, 2009.
- 권호중·박정숙, 「明代 『青樓韻語』의 편찬 의의」, 『중국어문학논집』 제87호, 2014.
- 권호중·신민아, 「『青樓韻語』 編纂背景 小考」, 『중국문화연구』 제26호, 2014.
- 권호중·이봉상, 「『青樓韻語』 체례 연구」, 『세계문화비교연구』 제49호, 2014.
- 송경애, 「明清 시기 揚州 青樓文化研究 -揚州瘦馬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47집, 2009.
- 이기훈·황영희, 「『青樓韻語』 판본 연구」, 『세계문화비교연구』 제47호, 2014.

Abstract

A Study on the Rules of Whoremaster(嫖客)'s 'Fengliu(風流)' through 『QinglouYunyu(靑樓韻語)』

Kwon, Ho-jong · Lee, Bong-sang

Since mid-Ming dynasty, the brothel(靑樓) had been prevalent. Accordingly, the number of whoremasters who frequented brothel surged. 『QinglouYunyu』 was an important book as a guide to clients in achieving a high degree of satisfaction. They got at the behavior codes, life style and mental state of the prostitutes(妓女) by reading 『QinglouYunyu』. This paper summarizes their behavior codes at brothel as follows.

- (1) to do as a man who seems to have been experienced before.
- (2) to be well-trained at writing and drinking.
- (3) to win prostitute's heart according to her taste.
- (4) to make a timely remark.
- (5) to rouse some adequate jealousy.

Like above mentioned, 『QinglouYunyu』 was a guide book to the whoremasters who visit brothels, and on the other hand it is a very important book as the works of literature that contains 507 pieces of poems.

Key words : 『Qinglou Yunyu』, whoremaster, the codes of behavior, brothel, prostitute

투 고 일 : 2015. 5. 10. / 심 사 일 : 2015. 5. 15.~ 2015. 6. 15. / 게재확정일 : 2015. 6. 16.